

송정시장 찾은 안희정 '선의 발언' 사과 지지율 반전 시도

현재 탄핵선고 하루앞...뜨거워지는 아권 호남민심 구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아권의 호남 민심 구애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올인'하며 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당 지지율 회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 조직 강화활동 및 지역 경제분야 정책 발굴에 나섰다.

아권 대선 주자들도 다시 아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구애하고 있다.

◇안희정 반전 모색=민주당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열흘 만에 아권의 뒷발인 호남을 찾아 지지율 반전을 시도했다.

안 지사는 8일 오후 광주의 대표적 전통 시장인 송정시장에 들러 상인·시민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9일 오전에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안 지사의 1박2일 호남 방문은 이곳에서 패하면 전체 경선구도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의 발언' 논란 이후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선의 발언' 논란 이후 냉랭해진 호남 지역민들에게 오해를 해소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호남 민심에 구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이날 송정시장에서 "'선의' 발언 이후 저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이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 광주를 다시 찾았다"면서 "오해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 아픈 점에 사과하고, 정권교체의 가장 강력한 카드이

박영선의원과 함께 지지 호소

민주당 경선 바람몰이에 올인

국민의당 광주시당 정책 발굴

광주발전 프로젝트 등 진행

자, 민주당의 젊은 주자가 저라는 사실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안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모임인 의원멘토단의 단장 박영선 의원과 장성 출신으로 비서실장인 기동민 의원이 동행한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지지를 선언한 현역 의원의 합류 등으로 전력과 조직적인 면을 보강한 안 지사 측은 캠프 역량을 호남에 집중해 반전에 필요한 세몰이를 한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 측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 고등학교 재경 동문 등이 지지를 약속하는 등 한동안 안 지사에 냉담했던 민심이 다시 불이 붙는다고 보고 호남 지역 지지세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총력전=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권은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당 지지율 회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 조직 강화활동 및 지역 경제분야 정책 발굴에 들어간다.

8일 광주시당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걱정말아요 여성이여'를 주제로 8개 지역위원회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장 여성위원회 발대식

를 개최한다.

이날 여성위원회 발대식은 광주지역 여성당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선승리를 결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발대식에서는 대선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에 이어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여성 관련 대선공약 발표와 광주지역 여성당원들의 역할을 주문하게 된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신 참석해 여성위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당은 이날부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국민의당 광주발전 프로젝트-드림팀이 간다' 제1탄을 진행했다. '드림팀이 간다'는 광주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 8명이 소속 상임위를 중심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들은 뒤 관련 정책을 직접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장병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과 권은희 시장위원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대선 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기업체 40여 곳을 비롯한 광주 전남중소기업청, 산업관리공단 광주전남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명품김치산업회사업단, 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 등의 유관기관도 참석해 허심탄회한 소통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인용으로 결정날 경우 아권의 호남 구애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장사는 어때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운데)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 지사 의원멘토단장을 맡은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 /나명주기자 mina@

"고난의 길 가겠다"...김종인 민주 탈당계 제출

개헌·개혁세력 결집이나 직접 출마냐...행보 촉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8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표의 탈당을 계기로 '김종인-손학규 연대'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당을 떠나면서 "이 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길을 마다치 않고 나라를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향후 광복 행보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 떠도는 가능성 큰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개헌'을 매개로 뜻을 함께하는 인사들을 결집,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하는 '비문연대'를 만드는 것이다.

김 전 대표가 전날 탈당을 공식화하며 가장 먼저 손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만난 배경에도 이런 구상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손 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김 전 대표와 개혁의 연대, 연합을 만드는 데 협조하지는 않겠다"며 "김 전 대표의 말씀은 첫째가 개헌, 둘째가 경제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김 전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씻어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 전 의장이 "대선 출마를 하려면 정당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김 전 대표는 "다음 대선이 꼭 당 대 선거가 되겠느냐. 나중에 정당의 기반은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은 정당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손 전 의장은 새로운 '개헌·개혁세력'을 만들어 문 전 대표에게 대항하겠다는 것이

김 전 대표의 구상이라고 전했다.

손 전 의장은 "국민의당·바른정당·민주당에서 새롭게 나올 사람들이 있고, 자유한국당도 현재 결정 이후에 커다란 분열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개혁'에 동의하는 세력을 모두 모으고, 교섭단체 4당에서 의원들을 규합, 이들을 중심으로 교섭단체를 결성해 집권의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됐다.

이날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김 전 대표에 대해 "친문 패권세력의 독선과 횡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김 전 대표가 구상하는 '빅텐트'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례대표인 김 전 대표가 탈당함에 따라 의원직을 심기준 최고위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그가 가니, 미술의 중심 뉴욕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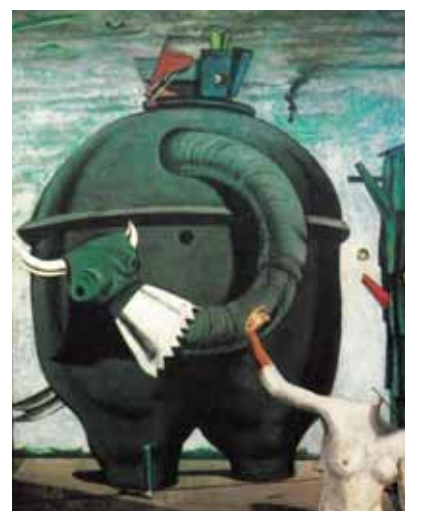


김은영의 '그림 생각'

(178) 폐기 구겐하임

'중독'이라는 단어는 참 치명적이다. 예술이든, 사랑이든, 활자이든 간에 그것에 젖거나 빠져들면 더 이상 울퉁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탐닉하지 못하는 내게 한 '예술중독자의 삶'은 경이롭기만 하다.

지난 주말 광주극장에서 관람한 영화 '폐기 구겐하임 : 아트 에디트'가 그랬다. 전설적인 컴퓨터 폐기 구겐하임(1898~1979)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영화는 말 그대로 '20세기 미술사'를 영화 한 편으로 요약해 한 순간도 놓치지 아가웠을 정도다.



에른스트 작 '셀레베스'

타이타니호 침몰로 사망한 부친에게서 거액의 상속받은 후 파리로 건너가 마르셀 뒤샹을 통해 미술에 입문하고, 런던에 화랑을 열어 본격적으로 작품을 수집했던 폐기는 2차 세계대전 중 그동안 수집한 미술품을 신고 뉴욕으로 건너온다. 미술의 중심이 파리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다.

이때 폐기는 막스 에른스트 등 유럽 작가들의 미국행을 도왔는데, 뉴욕 도착 후 영화에서 고백했듯 '지적인 미남'을 좋아해서 에른스트와 재혼한다. 인간의 잠재력을 창의력의 근원으로 여겼던 초현실주의자 에른스트(1891~1976)는 무의식에서 생겨나는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프로타주기법과 데칼코마니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던 작가.

에른스트의 작품 '셀레베스'(1921년 작)는 전형적인 '초현실주의의 품' 작품으로 영동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갖가지 사물들이 한데 뒤섞여 있다. 거대한 코끼리는 머리 없는 마네킹과 대면하고 있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하늘 등 그림 속 단서들은 관람자의 감상을 도와주지 않는다. 파괴와 파멸이 이어지는 전쟁을 겪으면서 고통스런 현실을 초월하고자 했던 당시 예술가들은 초현실주의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구절인 '해부대 위의 우산과 재봉틀의 우연한 만남처럼 아름다운'(로트레아몽의 시 '일부'이라는 표현처럼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구했던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합인항공권 문의 02)2075-3497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자세한 일정 및 다양한 상품을 확인하세요

창립 46주년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6년 연속수상/명예의 전당 입성

TTG(Travel Trade Gazette) : 전세계 관광산업 전문가 및 기자단이 선정한 관광업계의 노벨상

5월 황금연휴에 떠나는 일본 북해도 벚꽃여행

동반자 15만원 할인 프로모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30	5/1	5/2	5/3	5/4	5/5	5/6
출발	근로자의 날	연차	첫가탄신일	출발	어린이날	
7	8	9	10	11	12	13

3월 17일까지 예약자 한정/예약후 3일 이내 완납기준

[2016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CCM] 소비자중심경영(CCM)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

거대한 대륙으로 떠나는 중국여행

[NO옵션] 북경 4/5일 699,000부터

▶매주 화,금요일 출발 ●북경3박 ●금명왕초소, 발마사지 ●인리정성 게이블러, 인력카투어+인기방문

[정통] 상해,항주,서당 4일 549,000부터

▶매일출발 ●상해(3) ●서호의 밤 VIP석, 마시청 서커스 ●서호유람, 임시정부, 수항마을 서당

[정통] 상해,항주,주가각 4일 599,000부터

▶매일출발 ●상해(3) ●서커스, 주가각, 서호유람선, 서호의 밤, 밀라전시관, 발마사지

[품격] 상해+장가계+원가계,천문산 4/5일 899,000부터

▶매일출발 ●장가계(2)/상해(1) ●천문산 게이블러, 귀족전도, 전신마사지 ●황룡궁/보통호 입장 시 기온의 도보코스 대신 VIP 도로 이용 ●품격: 가이드/기사 경비 포함, 라텍스 목베개 증정(1개/1인)

부산출 ★STORY가 있는 HAPPY★ 대마도/ [알뜰] 대마도 1/2일 169,000부터

▶매일출발 ●대마도(1) ●나기펜션, 아로하펜션 또는 미정(3인~5인실 기준) ●황백현 저서(스트리텔링 대마도)가족당 1권 증정 ●버스내 와이파이 비저, BBQ(아시아끼) 특식제공

여행경비 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만 가능합니다.